

David Bauer 박사,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 6, 도서 조사, 인과관계, 입증, 요약 및 세부화

© 2024 데이비드 바우어와 테드 힐데브란트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세션 6, 귀납적 방법론, 도서 조사, 인과관계, 입증, 요약, 구체화 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차적 관계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제 더 나아가 원인에서 결과로의 이동인 인과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인과관계의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a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인과관계를 가질 수 없으며, 이 경우 암시적입니다. 인과관계는 암묵적이지만, 그럴 때마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그러므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단위 사이에 '그러므로'를 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면 인과관계가 적어도 그럴듯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언급할 첫 번째 유형은 역사적 인과관계인데, 여기서도 언급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사건 A가 사건 B를 일으키거나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역사적 인과관계의 예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다음 사건을 유발하거나 생산합니다. 그것은 역사적 인과관계입니다. 이에 대한 예는 아모스서 등의 선지자들에 나오는 죄와 심판 사이의 반복되는 인과관계일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죄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적인 심판을 초래하거나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가가 진술을 하고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것도 사실이라고 말하는 일종의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이다.

이 예에서 책 전체가 아니라 책 안의 작은 구절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설명하는 예는 실제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족보입니다. 족보 목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연히 1장 16절에서 그리스도라 일컬어지는 예수의 탄생으로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족보로부터 추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대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추론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제가 방금 말한 것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당신은 또한 권유적인 원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작가가 진술을 한 다음 계속해서 이 진술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그가 방금 말한 내용의 결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당신은 해야 하고, 그러므로 해야 합니다. 학자들은 이를 직설법에서 명령법으로의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래야 하고, 그러므로 해야 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신의 서신을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종류의 인과관계에 따라 구성된 골로새서를 예로 들었습니다. 골로새서에는 정말로 교리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당신은 권면이 없고 실제로는 지시적일 뿐이며 내가 교리를 말할 때 1장 3절부터 2장 5절, 그리고 2장 6절에 있는 내용에 대한 진술만 있고 책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 걸쳐 우리는 권면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 차례로 권고합니다. 그리고 2장 6절과 7절이 어떻게 읽혀지는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물론 그는 1장 3절부터 2장 5절까지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다.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건히 서라 감사함을 넘치도록 교훈을 받은 것과 같으니라 1장 3절부터 2장 5절까지 너희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내가 말하였으니 특별히 그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데에는 그 외에는 아무 것도 필요하지 아니하니 그런즉 내가 주는 이 권면과 이 계명을 지키라 책의 나머지 부분.

이제 입증에는 실제로 인과 관계에 있는 것과 동일한 두 가지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인과 관계에 포함되는 동일한 두 구성 요소는 역순으로만 포함됩니다. 인과관계는 원인에서 결과로의 이동을 포함하는 반면, 실증은 결과에서 원인으로의 이동을 포함합니다. 입증을 위한 주요 용어는 '때문에' 또는 '때문에'입니다.

두 단위 사이에 이유 또는 for가 있을 때마다 입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명시적으로 이유가 없거나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다시 한 번 여러분은 다양한 유형의 입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가지입니다. 인과관계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3가지 유형의 입증입니다.

첫 번째는 논리적이기도 합니다. 예, 역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요나서 4장 2절에서 볼 수 있는 역사적 실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4장 2절에 있는 내용을 스스로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크게 요나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나서의 마지막 장인 4장은 주님의 결정에 관해 주님과 요나 사이에 대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니느웨를 멸하시며 니느웨에 내리실 심판을 후회하시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 4장에서 요나가 그 일을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 말이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스로 급히 도망하였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사 악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즉, 내가 지금 하는 말

때문에 1장과 2장에서 행한 일을 한 것은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악을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음이다. 이제 여기 요나서 4장 2절에 있는 이 입증은 요나서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핵심입니다.

이런 진술이 없었다면, 4장 2절에 이런 실증이 없었다면, 1장에서 여호와와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을 때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당연할 것입니다. , 이르기를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는 악독이 내 앞에 이르렀음이니라 하라 그리고 요나는 일어나서 갔고, 괜찮게 일어났지만, 그의 돈이 그를 데려갈 수 있는 한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갔으며, 동쪽으로 니네베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다시스로 갔습니다. 니네베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를 멸망시키고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4장 2절을 보면 이 실증적인 진술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와 얼굴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를 죽이고 그를 멸망시키려 했으나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1장과 2장에서 했던 일을 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결과적으로 요나가 1장과 2장에서 주님의 면전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4.2에 주어진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와 악을 회개하시는 이가 많으신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결과에서 원인까지. 이번 사건은 이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작가가 계속해서 진술을 한 다음 그 진술이 왜 사실인지 나타내는 논리적인 입증도 가능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이것을 믿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런 종류의 논리적 근거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1절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청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이 목자의 손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2절부터 6절까지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 때문이다. 2절부터 6절은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니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 이것이 참되는 이유, 너희가 마땅히 믿어야 할 이유는 내가 앞서 2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 때문이니라.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느니라. 그분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내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 선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당신은 내 원수들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준비하셨습니다.

고대에 목자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양을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어떻게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입증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물론, 명령, 권고, 즉 명령의 또 다른 단어인 명령,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이나 그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면적인 입증도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이런 종류의 권고적인 실증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편 100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근거가 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권면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노래하면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나오십시오.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라. 그가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라.

따라서 1절부터 4절까지의 권고가 차례로 나와 있고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라. 이제 우리가 성경 자료에서 때때로 발견하는 또 다른 유형의 관계는 실제로 수단에서 목적으로의 이동을 포함하는 도구화입니다.

계측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계측은 목적 진술입니다. 실제로 목적에 대한 명시적인 진술이 있을 때, 즉 그러한 종류의 진술을 위한 명시적인 진술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신명기는 도구 사용의 반복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명기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목적에 대한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필자는 법을 준수하는 목적이나 목적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그럼 신명기 4장 40절부터 시작하여 여기 신명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네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원히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5분 29초에. 아, 그들이 항상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5:33.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살고 복을 받고 여러분이 차지한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6:2. 6:1, 2. 이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이다. 이는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여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 모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네 평생에 지키라. 보시다시피, 당신은 이것을 갖고 배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책의 상당 부분에 걸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13장 17절에 가는데, 실제로 책 전체에 걸쳐, 심지어 13장 이후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잠언 서두에도 목적에 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잠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여기서 RSV를 인용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 함이며 슬기로운 행실과 의와 공의와 공평으로 교훈하게 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로우움을 주고 청년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며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함을 듣고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수수께끼를 깨닫는 능력이니라

책에서 목적을 기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작가가 이 책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글을 쓰면서 그의 의도는 그것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즉 그것이 독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책 전체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책 내의 개별 구절을 해석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명확한 목적 진술은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개별 잠언을 해석할 때 문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 그 잠언은 어떻게 이 목적을 달성합니까? 그리고 잠언의 목적은 이 잠언 자체의 의미를 실제로 어떻게 밝혀 주는가? 그리고 이는 책 내의 개별 구절을 해석하는 측면에서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유형의 도구는 수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그런 종류의 진술을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에 의해 또는 통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는 명시적일 수 있습니다. 또는 암시적. 때로는 실제로 이러한 단어를 통해 또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책 내의 구절이나 요소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 그것이 책 내에서 본질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땅을 주고 그 위에 심는 야훼의 사역의 수단 또는 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역할이나 기능입니다. 그는 수단입니다. 물론 인간의 수단을 말할 때 더 정확하게는 대항자 등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는 사람들에게 땅을 주고 그 위에 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단, 대항자로 기능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백성을 그 땅으로 데려오고, 그 땅에 정착시키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가 하는 역할이고, 여호수아서나 여호수아서 안의 개별 구절을 해석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유형의 관계는 준비와 실현의 관계입니다.

이것의 또 다른 말은 소개입니다. 여기에는 이벤트나 아이디어에 대한 배경이나 설정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즉, 이 구절의 본질적인 목적 또는 이 구절의 본질적인 역할이나 기능은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신서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위 서신의 문안은 준비와 실현의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의 예는 갈라디아서를 들 수 있습니다.

어디 보자. 글쎄, 나는 여기서 빌레몬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 중 몇 가지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외에 갈라디아서를 언급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갈라디아 교회들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말미암아 사도 된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현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니 그에게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이것이 우리가 책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게 되는 배경이나 설정을 제공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밝히는 저자의 관점에서, 저자는 자신을 바울이자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서 사도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책을 항상 이런 식으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는 다시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내용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의 사도직 문제는 그가 다루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이고 그가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배경의 일부로 바울은 사도였고, 물론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직과 그의 복음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사업은 우연히도 이 책에서 주요 강조점입니다. 소개나 배경 설명 및 나머지 부분을 통해 이미 제안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일이 있을 때 여기 배경이나 소개문에 포함된 요소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경 정보가 없었다면 책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졌을까요?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배경 정보가 책뿐만 아니라 책 전체의 개별 구절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조명합니까? 이제 준비 실현의 구체적인 형태는 예측과 이행입니다.

책 안에 나중에 그 책에서 성취될 예측이 있을 때, 그것은 준비 실현의 특정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측은 물론 나중에 그 예측의 성취 또는 실현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고, 여러분은 이것을 다시 열왕기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열왕기에서 열왕기는 25번이나 실제로 한 권의 책입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구분이 있다는 사실은 거기서는 단지 우연한 구분일 뿐입니다.

두 권의 책이 아니라 실제로는 한 권뿐입니다. 거기서 쉬는 이유는 작가가 두루마리 공간이 부족해서 한 두루마리가 다 떨어지고 열왕기의 엘리야 이야기

중간에 바로 다른 두루마리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에는 25번이나 성취되는 예언이 있으며, 그 성취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임혀집니다.

따라서 예언은 실제로는 대개 선지자의 예언이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취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유형의 관계는 자료 단위 앞이나 뒤에 요약 또는 요약을 포함하는 요약입니다.

이제 요약은 일반적인 진술과 매우 유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일반적인 진술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특히 논리적 특수화 또는 논리적 일반화 측면에서 이야기했을 때 작가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설명하고, 풀어내는 논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약문은 덜 일반적이고, 더 구체적이며, 더 많은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점별 요약, 점별 요약입니다. 또는 요약이 요약된 내용의 시작 부분에 오면 요약되는 내용의 미리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실제로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구절에 대해 여기 성경을 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여러분은 사사기에 있는 내용, 일련의 사사기, 그리고 옷니엘에서 시작하여 삼손으로 끝나는 일련의 사사기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 장에 걸쳐 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글썄요, 실제로는 3장부터 16장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실제로 이 전체 기간에 대한 요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말했듯이 여기 2:11부터 23까지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노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 주시고 그들이 약탈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원수들의 세력에 팔아서 그들이 더 이상 원수들을 대항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마다 여호와와 그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경고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으니라 그들이 곤경에 처하였느니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할 재판관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재판관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행음하고 그들에게 몸을 굽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계명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길에서 곧 떠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 사사들과 함께 계셔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느니라.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괴롭게 하고 억압하는 자들로 인해 그들이 탄식하므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다른 신들을 좇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은 그 어떤 행위나 고집스러운 행위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그가 이르되 그의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 둔 모든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로 시험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여호와와 그의 길을 삼가 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버려 두시고 단번에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그것은 분명히 사사들의 다양한 이야기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요약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웃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물론 각 부분의 사전 항목은 거기에 있는 특정 사사들의 개별 기록에 포함된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별 계정은 요약문에서 말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합니다. 이제 요약문은 요약문으로 요약된 책이나 구절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약 세 가지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우선, 요약문의 설명 방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사기의 저자는 요약과 관련하여 거의 항상 사실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기 시대를 수천 가지 다른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책의 나머지 부분 대부분을 이 언어, 이러한 용어 등을 사용하여 요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용어는 그가 이 전체 기간을 설명하고 앞으로 있을 세부 사항을 요약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합니다. 물론 선택성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그는 요약문에 있는 내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약문은 요약문이고 필연적으로 선택적이기 때문입니다. 요약문에서 작가는 실제로 독자에게 요약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려줍니다. 이제 요약문에는 요약문이 없으면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나타내는 특정 세부 사항이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진술에는 약탈 등의 모든 일과, 그들을 괴롭게 하고 압제하는 자들로 인해 그들이 신음하므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모든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야훼가 불쌍히 여기시는 일이 특정 재판관 등의 모든 특정 이야기에서 표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강조 표시된 특정 세부 사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된 자료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요약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약문 자체의 구조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사들의 예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요약문 자체 내에 여기 있는 열방을 쫓아내지 않으시는 주님에 대한 목적을 실제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나라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주의 길을 삼가 행하는지 혹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아니다. 즉, 당신은 그 땅에 나라들을 남겨 두려는 일종의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 내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가시가 되는 이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고난을 주는 기회입니다.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그들이 그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주의 길로 행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니라. 그런 다음 또한 그 이상으로 요약 진술의 즉각적인 문맥이 요약 진술을 알리고 그에 따라 해당 진술에 의해 요약된 자료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의 관계는 질문이나 문제에 이어 그에 대한 답변이나 해결책을 포함하는 심문입니다. 심문에는 실제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질문-답변 유형의 심문으로, 실제로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과 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실제로 책 수준에서 이에 대한 좋은 예는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는 반복되는 심문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집니다. 그것을 살펴보자.

이미 1장 2절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거늘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사랑하였느냐 하는도다 질문하고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라면 내 명예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주인이라면 나의 두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여, 당신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어찌하여 멸시하였나이까? 질문 답변. 내 제단에 오염된 음식을 바침으로써.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오염시켰나요? 질문에 이어 답변이 이어집니다. 주님의 식탁이 멸시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함으로써. 그리고 우리는 2장 13절에서 그것을 다시 얻었고, 여러분은 이것을 다시 합니다.

너희가 눈물과 통곡과 탄식으로 여호와와의 제단을 가리우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서 드리는 제물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받지도 아니하심이라. 왜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 답변.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의 언약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셨나니 그는 네 짝이요 언약으로 된 네 아내이면서도 네가 그에게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면 다시 15절에 묻고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가 바로 생명의 영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 답변. 경건한 자손.

또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주님을 근심하게 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주를 근심케 하였느냐? 질문 답변. 악을 행하는 자마다 여호와께서 선하시며 그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거나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3장 6절에 나옵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시절부터 너희는 내 율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질문 답변.

당신이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을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강탈하고 있습니까? 질문 답변. 너희의 십일조와 예물 중에서 너희가 저주를 받는 것은 너희 온 나라의 것을 도적질하였음이라. 다시, 3:13.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엄히 말하면서도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너희를 향하여 말하였느냐 하느냐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질문 답변.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그분의 직분을 지키는 것과 애통하는 것처럼 걷는 것 등은 유익합니다. 보시다시피, 말라기서 전체는 실제로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 선언하신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라고 묻습니다. 왜 이런가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각각의 경우에,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그들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심문의 또 다른 유형은 문제 해결 유형의 심문입니다. 그리고 오버헤드 측면에서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유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카논 내의 여러 위치에서 발견합니다.

그 예로 롯기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장에는 실제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땅의 기근 문제, 가뭄, 유다 땅의 기근 문제입니다. 물론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죽음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뿐만 아니라 두 아들도 죽음으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결실 없음, 기근, 굶주림, 슬픔, 외로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1장 끝에서 나오미는 더 이상 나를 유쾌하다는 뜻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오히려 나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1장 끝 부분에서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 롯이 유다로 돌아간다는 내용을 읽습니다. 롯기 1장 끝 부분에는 매우 심오한 진술이 있습니다. 보리 수확의 시작은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 걸쳐 이중 문제에 대한 이중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예상합니다. 굶주림, 기근, 가뭄의 문제는 수확의 문제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롯기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음식을 수확하는 것과 그와 비슷한 것을 나누는 것에 대해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죽음, 가족의 부족, 외로움과 외로움의 문제는 롯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해결되며, 특히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 오벳의 결혼 문제로 해결됩니다. 흥미롭게도 책의 마지막 부분은 롯이 아니라 나오미가 간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는 주님께서 실제로 그녀를 채워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문제, 해결책.

룻기의 주장, 메시지 및 개별 구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룻기 내의 개별 구절이 실제로 어떻게 참여하는지 탐구하고 이 중요한 문제 내에서 기능합니다. -솔루션 콤플렉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책 전체에 걸쳐 개별 구절의 의미, 구체적인 의미를 어떻게 조명하는지. 글썄, 우리는 소위 기본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휴식하기 좋은 곳입니다.

다음 세그먼트로 돌아올 때 보조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세션 6, 귀납적 방법론, 도서 조사, 인과관계, 입증, 요약, 구체화 등입니다.